

「동락공원 영구시설물(태양광 발전 시설 등) 설치 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11월 28일

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경제산업국장 유 경 숙

나. 제안이유

- 각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탄소중립 규제 강화와 수출기업들의 RE100 참여 확산에 따라 저탄소·친환경 에너지 중요성 대두
- '22년 공모 선정된 「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」의 일환으로 동락공원 제2주차장에 PV, ESS, V2G 및 EV충전소 등을 연계·운전하는 DC-Grid를 구축하여 에너지거래 신기술을 실증하고자함

※ 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
기 관 명	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구미시	사업부지 제공(공유재산 유상허가)
민 간	DC-Grid 구축 및 기술 실증 (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) * DC-Grid 구축을 위한 추가 예산 없음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*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,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

* 영구시설물: 공유지에 고착되어 이동할 수 없는 시설

※ 근거: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, 제9호
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

다. 주요내용

○ 사업개요

- 1) 사 업 명: 동락공원 영구시설물(태양광 발전 시설 등) 설치
- 2) 기 간: 2023. 12월 ~ 2024. 12월
- 3) 위 치: 3공단1로 219(동락공원 제2주차장)
- 4) 사업내용: DC-Grid 구축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거래 및
에너지 자급자족 신기술 실증
- 5) 주요시설: PV(태양광 발전 시설 625kW), ESS(에너지저장장치 1.1MWh),
V2G 20kW 10기, EV충전기 50kW 10기

○ 운영방법

- 1) 운영주체: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

- 2) 운영기간: '24 ~ '29년('24년 사업 종료 후 5년간 의무 운영)
(PV, ESS 10년 이내 2회 / V2G, EV 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)
- 3) 운영범위: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·공급, 전기차 충·방전
서비스 제공, 설비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
○ DC-Grid 설치계획

- 1) (발전) PV(태양광 발전 시설) 625kW 1개소
- 2) (저장) ESS(에너지저장장치) 0.8MW 1개소, 0.3MW 1개소
- 3) (사용) EV충전기 50kW 10기, V2G 충전기 20kW 10기

○ 향후 추진계획

- 1) 2023. 11월: 동락공원 영구시설물(태양광 발전 시설 등) 설치 동의
- 2) 2023. 12월: 공유재산 사용허가
- 3) 2023. 12월: 사업 착수
- 4) 2024. 12월: 사업 완료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7조 및 별표2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,3
-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
-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8조의2
-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시 3공단1로 219일원(동락공원 제2주차장)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

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및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발전-저장-사용의 시스템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으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보로 편의성과 접근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주차장 내 시설물의 설치로 주차대수 감소에 따른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